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95 홍해작전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오는 6월 6일 새벽 5시 개전

'95 홍해작전이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6월 6일에 개전한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현충일인 6월 6일을 기하여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을 한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을 따라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작전이다.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년 내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지만 홍해작전 기간은 전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게 된다.

평소에는 거리나 시간 관계상 잘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에게 본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락방이나 전도회 등에서는 서로를 격려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 될 '95 홍해작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에 개인과 가정, 민족과 사회 그리고 환경과 자연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창조질서를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95 홍해작전 개요

- 주 제: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의 회복
- 주제성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 기 간: 1995년 6월 6일(화) ~ 6월 25일(주일), 20일간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95 홍해작전 기간동안 기도할 것 일곱가지

1. "주여, 내니이까"
죄를 범하고도 가증스럽게 죄를 감추었던 가롯 유다. 이 시대의 가롯 유다가 자기 자신임을 자복하고 숨겨진 죄까지 철저히 통회하자.
2. "깨어진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남북 분단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7천만 우리 민족에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심사고 애소하자.
3. "내 집을 항부하였거늘 너희 집은 편백한 데 있구나"
우선권을 바로 선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며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분별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계복음화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자.
4. "가서 적도 이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가정, 교회, 일터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6.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대특명을 따라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자.
7.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면전에서 인간, 사회, 자연이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교회, 민족이 되도록 탄원하자.

제 6차 김치(KIMCHI)신학 세미나와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기도의 불씨되어 이슬람권에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 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이 주최하는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5월 30일에 시작한다. 우리 교회는 김치 신학세미나 기간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제 6차 김치 세미나가 효과있게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자국 복음화에 기여하며, 그것으로써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치 신학세미나의 목적 중의 하나가 타문화권 목회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특별히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어 온 새벽기도회의 유익을 알려 주어 새벽기도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데에 있다.

이번에 참석하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들로서 복음 전파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은 "그들 내부로부터의 회의와 스스로의 봉

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이슬람권에서의 선교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한다.

이러한 이슬람권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의 불씨가 되자. 특별히 이슬람권 복음화의 주역이 될 목회자들이 이번 김치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되고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습득하며, 자국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모임(National Strategy Meeting)등이 밀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특별기도회는 5월 30일에 시작하며 홍해작전과 연결되어 김치 신학세미나 폐회예배를 드리는 6월 9일까지 계속된다.

▶가정의 달 설교 ③

크리스찬의 가정

에베소서 5장 21 - 23절

이 중 윤 목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6장에서 성령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對神關係)가 바른 사람이고 나아가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對他關係)도 바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이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상고하며 은혜를 기드립니다.

1. 가정 -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모든 제도의 기초

창조작업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으나 인간의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마19:4-6).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가정의 주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진화론이나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공수정, 인공적 장기이식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가치가 물질화되고, 이로 인해 도덕적, 윤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가운데 결혼관이 왜곡되고 있으며 성개방과 무분별한 자유화 물결을 통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소중함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인간의 약함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장난이요 마귀의 일임을 알고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2. 아내된 자가 할 일 - 순종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아내된 자들이 할 바는 복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의함 같이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피차 복종합니다.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창조 활동의 완성과 각자의 완전한 인격을 위해 돕는 배필로 정하시고 특별히 아내된 자에게는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조와 구원에

교회기 그리스도에게 아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4, 25절)

있어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 말씀을 잘 습득하여야 하겠습니까.

3. 남편된 자가 할 일 - 사랑

성경은 또한 남편된 자의 제 1의무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무조건적 사랑(Agape)을 아내에게 해야 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높은 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면 그리스도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

아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의 삶에 동참하며 실수를 덮어주고,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성화애로 이끌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아내가 흠없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남편 자신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상호 돕는 배필로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께 하듯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생애(total life)를, 전인격을 바쳐서(total person),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total commitment)해야 합니다.

에드 헛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최선책(BEST)으로 서로 축복하는 삶(Blessing), 덕을 세우는 일(Edifying), 공유하는 생활(Sharing), 그리고 접촉(Touching)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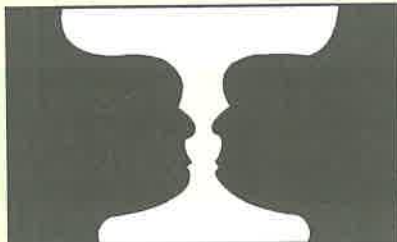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요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순례자' 캠페인

그리스도를 경의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에베소서 5장 21절)



②

얼굴과 꽃병받침

두 사람의 옆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그림이 잔이나 꽃병받침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배경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얼굴(검은 부분)을 배경으로 본 사람은 꽃병받침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꽃병받침(흰부분)을 배경으로 본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옆 얼굴을 먼저 봅니다.

같은 문제라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에 의해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매일 닦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앞에서 아집과 편견은 다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내 주장만 앞세우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생각을 경청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시각으로 일상의 일들을 보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좌절과 절망의 때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우리 교회의 결혼예식지침



■ ...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신성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식을 갖게된 이들의 영광스러운 예식이 치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지침을 정하였다. ... ■

1. 결혼식을 우리 교회당에서 할 경우, ① 주례청원서 ② 교인증명서 ③ 호적등본 1통씩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주일성수를 위해 토요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단, 교회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 중에도 예식을 행할 수 없습니다.
3.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등록후 3개월 이상 출석한 학습 및 세례교인, 또는 당회장이 인정하는 미혼남녀 성도로서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4.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집례는 본교회 목사라야 합니다.
5. 폐백행사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화환은 일체 사절하며, 강당의 꽃은 간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예식 중 소란스러운 축하절차나 특수 장치는 금합니다(폭죽 사용, 꽃가루 뿌리기, 테이프 던지기, 조명장치 등)
8. 예물 교환은 성경책 이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친송기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청첩장은 본교회교인에게는 삼가며 후보 광고로 대신합니다.
10. 양가의 혼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좇아 검소하게 하되, 절제운동실천 지침에 따라 신랑은 혼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11. 신혼여행 시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며 새가정은 매일을 가정예배로 시작할 것을 주례자와 약속합니다.
12. 모든 예식의 절차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객 모두도 예식에 임숙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 목사님, 잠깐만요 결혼 적령기는 언제입니까? 결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혼적령기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있으며 언제 하는 것이 조혼이고 언제가 가장 결혼의 적절한 시기가 되는 것일까요?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된 후 그의 동반자인 하와가 창조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몇십년이 흘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동안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산을 가꾸면서 자연 속에 있는 암컷과 수컷을 알게 되었고 자기를 위해서는 돕는 자가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창2:20).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된 인물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책임인이 되었을 때, 반려자와 함께 이 일을 성취하도록 주어진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남자가 책임감을 느꼈을 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결혼 적령기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살이 되면 결혼하고 몇살에는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적령기입니다.



성경적인 결혼 조건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다.

▶ '아파트 30평짜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학벌은? 키는 170cm 이상인가? ...' 하는 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결혼의 조건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서 '신랑' 이라고 하는 말은 '할례 받은 자'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은 할례를 베푸는 자, 장모는 할례베푸는 자의 여성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장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님니다만 할례의 의식적 규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태어난지 8일만에 행하는 할례는 '은혜의 계약 속에 그 아이를 집어넣는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회중에 들어오는 예식이며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예식입니다. 할례는 계약백성이 되는 사인(sign)으로서 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계약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완전한 계약백성으로 받아들여져 결혼하는 것, 그것이 '신랑' 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구약시대에는 한 남자에게 딸을 주기 전에 장인 되는 자가 그 청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승락받

음으로써 그 청년은 비로소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할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된 것으로 인정받게 됨으로 참 계약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의 대명사가 '할례받은 자' 인 것입니다.

또, 신부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은 '완성자' 또는 '완전한 자' 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완성과 성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여인을 상대자로 택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 성숙이 영적인 성숙은 아닐 것이며, 영적 성숙이 반드시 육체적인 성숙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부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 순례자 걸림 ✦

변하여 새사람 되고

혈기는 마귀의 소산이며 죄다. 습관적이든 우발적이든 이것들을 제거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자제할 수 없는 성품을 노골적으로 폭발시키거나 누적된 불만이 복수극으로 터져나올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아이들이 화풀이를 할 때, 어른들은 귀찮거나 시끄럽다는 이유로 쉽게 항복한다. 이런 아이들은 화를 내면 자기 뜻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혈기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인생을 살려한다.

가정의 달애, 가정을 파괴시키는 혈기를 몰아내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충만한 성령이 다스리는 새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음악회

27일(토), 오후 5시 1층예배실에서

오는 27일(토) 5시에 가족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한자리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고전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의 음악회에서는 오르간 독주에 서유진 선생이 <바하의 소나타 I>을, 피아노 독주에 한현숙 선생이 <모차르트의 환타지와 슈만의 알레그로>를, 테너 서동일 선생이 <드보르작의 세 개의 성가곡>을, 김기동 선생이 <모짜르트 플룻 소나타 5번 다장조>를 각각 연주하게 된다.

이 음악회는 본 교회 음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음악인 선교회(가칭) 창단의 전초적인 프로그램이 기도 하다. 음악인 선교회가 구성되면 수준 높은 고전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건전한 크리스찬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예배 및 선교와 구제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일에 헌신할 예정이다.



가정세미나 제 3강

『부부 한마음 워크숍』

20 - 50대의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가정의 달을 맞아 3주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가정세미나의 마지막인 『부부 한마음 워크숍』을 27일(토) 오후 7시부터 개최한다.

가정 세미나의 강사인 심상권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행복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열리는 이번 워크숍이 우리 가정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누어 오는 우리 가정들이 좀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며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두시간 동안 진행될 이날의 워크숍은 20 ~ 5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동문회

제2차 총회 개최

새 임원진 선출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동문회의 제 2차 총회가 지난 15일과 16일 광성수련원에서 있었다. 임택진 목사와 이종윤 목사는 강연을 통해 하나님 면전에서 목회 생활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둘째날 오전에 가진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으로 회장에 정경화 목사, 부회장에 차정운 목사, 박태흠 목사, 박승호 목사, 차명숙 목사, 총무에 전영국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협동총무로는 임진태 목사, 서기에 김근수 목사, 회계에 윤경화 전도사가 임명되었고 정상운 목사, 이만호 목사가 감사로 수고하기로 하였다.

5월 새가족 환영회

28일(다음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5월에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 좌석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이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교회학교 학생들은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른들의 기쁨에 꽃을 달아드리며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2일(월)에 세계로잔위원 20명을 초청, 릿츠 칼튼 호텔에서 조찬기도회를 인도한다.
- 이종윤 목사는 24일(수)에 서울여자대학교 개교기념예배의 순서를 맡는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임옥 목사)가 주최하는 기독교 언론인 초청 간담회가 26일(금) 오후 7시 30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의 특강은 이종윤 목사가 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7 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⑥ 5월 22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예식과 영성(정장복 박사)
- ⑦ 5월 29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마을의 목회와 영성(박형용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